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411

2019.6.30

창립31주년 기념호

2019년 주님의교회 포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
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_ 이사야 2:4

오늘의 주요기사

2-3면	창립31주년 기념 설교
4면	창립31주년 특별기고
5면	사역기사, 신앙시편, 기독교용어
6-7면	창립31주년기념행사화보
8-9면	통일선교학교 소식
10면	코마인터뷰
11면	사역기사
12면	함줄함울 캠페인, 사역소식
13면	목회 칼럼
14-15면	신임 향존직 소감
16면	아기나들이, 알립니다

교회일정

7/2(화)~4(목)	전교인사경회
7/7(주일)	성찬주일
7/10(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7/14(주일)	정기당회
7/17(수)	2/4분기 제직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줄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교회 본질의 회복’, 31년 전의 약속

주님의교회가 2019년 6월 23일 창립 31주년을 맞았다. 비로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1988년, 이재철 전도사와 성도 53명이 소박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출범한 주님의교회는 당시 많은 교회가 산업화시대 사회의 흐름에 병행하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목표로 여기던 시절, ‘교회 본질의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창립 이틀 전 열렸던 창립준비기도회에서 재정의 절반을 밖으로 보내 선교와 구제에 쓰기로 서원했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역자와 장로의 임기제를 만들었다. 크고 멋진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려고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비웠다.

이후 31년,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노력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과연 없었을까. 혹시 우리는 이 네 가지 제도만 지킬 뿐, 그 안에 담겼던 초심은 31년 전 어딘가에 못 박아놓고 온 것은 아닐까. ‘교회 본질의 회복’을 먼 시간 저편에 빛바랜 채 매달려 흔들리고 있는 희미한 구호 정도로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그 초심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과연 고민은 하고 있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놓고, ‘선’의 이쪽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교회 안팎에서 과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을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실 때, 과연 우리가 떳떳할 수 있을까. 성년이 되었기에 더욱 부끄럽지만, 성년이 되었기에 반드시 되새겨 보아야 할 ‘약속’이 우리에게겐 있었다. > 화보 6~7면

함줄함울

창립31주년기념 특집 | 김화수 담임목사 설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 고린도전서 9:16~27

단 하나의 선택지, 영혼 구원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요즈음 기독교는 종교적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이 영화나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가는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화나 연극을 보는 일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돈을 주고서 보고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교회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겨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책임져야 할 일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가 찝찝해서 교회에 나와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의 신앙으로 어떻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순교적 태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눈물이 있어야 하고, 내 고난이 있어야 하고, 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며 씨 뿌리는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31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바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중 적지 않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 수도 있는 한 가지 선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립기념 주일이기에 이미 익숙해져 가는 관념의 틀을 깨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꽤 많은 교우가 주님의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여서 참 좋다.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참 좋다. 이미 대형교회가 되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한가? 그러지 않아도 공간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교우들이 더 찾아오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을 구원하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로 사람을 모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나요?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의 유훈이요,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감을 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다른 거창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좀 멋있어 보이는 것, 뭔가 눈에 띄고 표가 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왜 아직도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입장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 일에 앞장선 목사나 종직자가 영혼 구원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목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강단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창피해서 고개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수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의 삶을 제 마음에 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토록 감동되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최선을 경주했는지,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가 처절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과 비교해보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최선이라는 것이, 저의 수고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우리도 바울의 최선을, 바울의 수고를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반의반만큼의 열심만 내어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자랑할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16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이유가 1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구절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진해서 이 임무를 맡았다면 주께서는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서는 내가 “아니오,”혹은 “예”할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라면 누구든 당연히 감당해야 하므로, “이 일은 내가 하겠다, 나는 못 하겠다”라는 선택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삶을 통해 예수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선택은 포기이다

19절~22절 전반부 사이에는 똑같은 구절이 다섯 번이나 반복됩니다. 19절 “언고자 함이요,” 20절 전반부 “언고자 함이요,” 20절 후반부 “언고자 함이요,” 21절 전반부 “언고자 함이라,” 22절 전반부 “언고자 함이요.”

이러한 반복적 표현은 바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은 종이 되기도 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기도 했고, 율법 없는 자가 되기도 했고, 약한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종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움을 사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정말 충격적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집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바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식들을 유대인 사회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회자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고자 선택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중세 철학의 명언 가운데 “모든 선택은 포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선택은 사실 수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복음을 선택하고, 그는 가문의 명성과 학문적 성취, 지금껏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으로 쌓아온 명예 등,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순간,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삶에서 그 선택과 포기가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의 삶은 이 선택과 포기가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십니다. 물론 단번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바울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세상 다른 것을 포기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예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 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본성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욕망에 몸살을 앓을 때도 있고,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이러한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복음을 전한 후, 오히려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하는 훈련을 지속했습니다. 훈련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한다고 합니다. NIV 영역본은 이 구절을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의 종으로 삼아(복종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내 몸을 친다는 말의 원어에는 “눈 아래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싱선수가 시합에서 상대방의 눈 아래를 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만큼 훈련을 해야 예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지 못했을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데이비드 니벤은 『행복한 사람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행복하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 말합니다. 뭔가 남다른 정신과 남다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만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다른 정신, 남다른 자세란 무엇인가?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게 살아가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꿈을 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복음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창립 31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 모든 교우가 오직 예수복음을 희망으로 삼고 예수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31주년기념 특집 | 특별기고

주님의교회를 섬긴 주의 종들

시작과 번성

1988년 6월에 창립된 주님의교회는 돌아나는 새싹같이 아름답고 신비스러웠습니다. 상업화 한 현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 주는 모델이었으니까요. 창립 당시 교회 설립의 목회자는 6, 70년대 최고의 스타 고은아의 동생 이재철 전도사였습니다. 목회자라기보다 연예인이라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이 반듯하고 예뻐했습니다.

기존교회에서 교회 비리를 비판하며 깨끗하고 모범적인 공동체를 이루려는 젊은 집사들이 이재철 전도사와 성경공부를 함께 하면서 뜻이 합쳐져 주님의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주역들이 고(故) 이재원 장로, 김도복 집사, 홍근용 집사, 황기언 집사, 양동훈 집사들이었습니다. 창립자 중, 교회를 섬기다가 도중에 다른 교회로 떠난 분도 있었습니다. 이 창립 주역들은 교회 하나를 섬기는데 감동스러울 정도로 충성스러웠고 하나같이 믿음의 본을 보여 주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4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강남 YMCA로 옮긴 후, 400명으로 급증한 교인 수가 1990년에는 1년 동안에 800명으로 증가하였던 사실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구역이나 교구가 아니면 얼굴도 못 알아볼 만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창립 주역들은 이미 장로 시무를 은퇴하였고, 이 들의 창립 정신은 젊은 일꾼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뜻

교회 건물을 갖지 않는다, 헌금의 절반은 구제와 선교에 쓴다, 향존직은 10년 임기제로 제한한다는 구체적 목표가 교인들의 호감을 사기도 했지만, 이재철 목사의 이론과 실천이 하나 된 논리적 설교와 새신자반이라는 성경공부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새신자반을 네 번 수강하고 책을 여러 번 읽고 주변, 특히 미국에 사는 가족 친지들에게 선물로 많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이재철 목사와 교우들의 일체감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렸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여중고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벌써 스스로의 자만심에 빠져 선교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기존 교회들의 타성이 우리에게도 감염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과장이나 거짓은 인정받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순수와 진실만이 인정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는 목사님들의 계보가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주님의 종들

창립목사인 이재철 목사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교역자로서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 제물이 된 주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진실되게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말씀과 일치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의 교육적 목회 활동보다 본인의 참된 실천으로 교인들과 기독교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義)를 설득하려 노력한 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을 만합니다.

임영수 목사는 칼 융(Carl Gustav Jung, 정신분석 심리학자)의 신앙에 입각한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을 자주 인용하면서 본인의 신념을 우리에게 주입시켰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강력한 만류는 고사하고 자신의 인간적 두려움마저 물리치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과정을 희생으로 감당한 ‘예수님의 자유’... 임영수 목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철 목사와 임영수 목사가 보수적 목회자라 한다면 문동학 목사는 진보적 목회자였습니다. 교인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는 이벤트를 기획하였고 말씀 해석의 방향이 매우 자유분방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운영에 경영학적인 기법을 도입하고 현실적 사회구조를 교회와 조화시키려 노력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삶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윤리적 강직성이 뛰어난 한국 사회가 문동학 목사의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목회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박원호 목사 역시 진보적 성향의 스포츠맨 교역자였습니다. 서구적 가치관이 강하게 표출되어 장로들과 조화를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교육적 성향과 집필 능력이 뛰어나 광대한 세계 선교 지침서를 10년에 걸쳐 완성하였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로 간주하였고 드라마틱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철 목사 다음으로 10년 임기를 채워 주님의교회 안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김화수 목사는 목회 활동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 근무하던 때의 교회가 지금은 양과 질이 변하였고 우수한 과거 목회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변화되며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조와 교인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나 아마도 김화수 목사는 그러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도 목사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고야 말 것이라 믿습니다.

맺는 말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참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목회자들을 모셨으니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임이 틀림없는 이재철 목사,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임영수 목사, 현실적이면서 창의적인 목회방침을 구사한 문동학 목사, 서구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해석하고 세계 선교교육의 지침을 제시한 박원호 목사, 오래 전, 교인들로 부터 ‘불의 사자’라는 별명을 부여받고 주님의교회 명칭에 가장 잘 어울리는 김화수 목사, 그가 제시할 주님의교회 비전이 궁금합니다.

우리 주님의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 주님의교회가 사랑과 부활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진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자유롭게 해 드려야 할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살아 있을 때에만 이 사명은 완수 될 것입니다.

김현덕 은퇴장로

창립31주년기념 특집 | 기념행사

주님의교회 창립 31주년 맞아



주님의교회가 31주년을 맞았다. 1988년 6월 ‘교회 본질의 회복’을 꿈꾸며 창립한 이래, 재정의 절반을 대외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주요 항존직을 임기제로 섬기며, 헌금을 무기명으로 드리고,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등 독특하면서도 본질에 충실한 제도를 창안하고 지켜와 현대 한국 교회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창립기념 주일을 앞두고 창립 31주년 기념행사로 ‘사랑의 쌀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쌀 나누기’ 구제복지분과위원회와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을 통해 교회 내외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9일에는 축제예배 및 교구 경연대회가 열려 전 교인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다. 청년과 청소년 찬양으로 시작하여 발자취 영상, 하늘의 축

제 위십, 교구별 경연대회, 스킷 드라마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서 모든 교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공연을 펼쳤다. 참여한 여덟 교구 모두 푸짐한 상을 받았으며, 특별히 어린이를 포함, 가장 많은 식구가 참여한 8교구가 그중 으뜸되는 ‘사랑상’을 수상했다.

창립기념주일인 23일에는 창립축하행사와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올해는 창립축하행사도 소박하게 3부예배 후 로비에서 축하연주와 케익커팅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로비 앞 광장에서는 31주년 기념 사진전이 펼쳐졌다.

4부예배에서는 임직식이 진행되었는데, 장로 3명, 권사 16명, 안수집사 16명이 이날 신임 항존직으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함글함글

기고 | 신앙시편

수가성(城) 여인의 물동이

한낮 햇살이 살을 파고드는 수가성 오르막
어떤 몸뚱이가 길을 오르고 있다
마을이 씨에스타에 든 틈새로
지은 죄 많아 물동이를 문지르며
물동이만한 마음으로 걷는다
단내가 오르는 와디
사막여우 한 마리가 유성처럼 저문다
한 뺨 그림자를 마저 지우는 정오의 햇살
그들의 손가락질에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
스스로 위리안치(圍籬安置)에 든 여인
한 사내가 기다리고 있다
야곱의 우물에 기댄 등줄기가
자꾸만 흘러내리는 빈손이
물 한 모금을 기다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남편 다섯을 거쳐 거품사내살이 하는 여인
지나간 한 살이가 비백(飛白)과 같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음박질치며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의 목소리가 사마리아 너머
저편 땅끝까지 메아리친다

사내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스테반은 돌팔매를 맞고
빌립은 여인의 메아리 같은 사마리아교회를 세웠다

이희숙 은퇴권사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기도 용어 편 5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복에 관한 표현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사람은 축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복을 비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의 성구에서

는 하나님이 복을 비는[祝福]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降福] 분임을 잘 밝히고 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지라.”(개역 한글판 창 12:3) “그가(멜기세덱)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개역 한글판 창 14:19)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는 “복 내려(베풀어) 주시옵소서.”로 바로잡음이 타당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함글함글 정리

창립31주년기념 특집 | 화보

주님의교회 31돌 맞아

주님의교회가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31주년 기념행사로, 사랑의 쌀 나누기, 축제예배 및 교구 경연대회, 창립축하행사, 임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념행사의 이모저모를 화보로 꾸몄습니다.





사역소식 | 제6회 통일선교학교

바람이 불어오는 곳, 통일선교현장 이야기

여섯 번째 통일선교학교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 통일선교현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님의교회 소예배실에서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첫주에는 “탈북민 사역”(이무열 목사), 둘째 주에는 “북한 지하교회”(이종만 사무총장), 셋째 주에는 “북에



서 온 형제”(강원철 형제), 넷째 주에는 “한 영혼을 찾아서”(오디모데 선교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사로 모신 이무열牧사는 김포



리두리하나돌봄센터를 맡고 있으며 재단법인 마중물 대표이고, 이종만 목사는 오픈도어선교회 한국지부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강원철 형제는 탈북민 출신으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오디모데 선교사는 원네트워크에서 사역하고 있다.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여 통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아래에 강원철 형제의 발표 원고를 수록한다.

통일선교학교 3주차 발표문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 변화와 우리의 역할

들어가면서

올해는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가 분단이 된지 74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이루어야 할 숙원이고 소원이 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시작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는 높아졌다.

남한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시각과 관점은 어떨까? 우리가 통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한 국가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일 대상은 2천 3백만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2000년 초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가

지고 있던 통일의식은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이 전부였다. 북한에서 17년간 교육을 받았던 필자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 생의 최대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15살 때부터 공부보다 군대에 가기 위한 체력 준비에 더욱 집중했다. 북한의 군사복무 기간이 10년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혈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고 조국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북한 당국의 거짓된 교육과 외부정보 차단 결과였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세뇌교육으로 인해 인민군에 입대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중국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인민군에 입대를 하면 10년 동안 휴가도 없기에 집으로 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던 필자는 군대에 가기 전에 집에 경제적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줘야 하겠다는 생각에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 처음 탈북을 할 때에는 3개월만 중국에서 일하고,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군에 입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3개월간 북한에서 몰랐던 진실과 마주하

게 됐고 이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먼저 중국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알게 됐다. 북한에서 배웠기에 국호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데 국호도 있고 국기도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더욱 놀랐던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남조선 인민들을 혈벗고 굶주리고 있고, 아이들은 돈이 없어 학교를 못가고 있다고만 알고 있던 나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 생활 3개월 동안 북한에서는 몰랐고, 접할 수도 없었던 진실을 하나 둘 알게 되다 보니 북한 정부와 체제에 대한 실망감은 배가 됐다. 이로 인해 북한으로 돌아가 군대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포기 했다. 그리고 자유의 땅 대한민국행을 결심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은 어떨까?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교육하는 ‘적화통일’정책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과 지금의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 환경이 가져온 결과이다.

통일의식 변화의 원인

첫 번째 변화의 원인은 풀뿌리 시장 경제인 장마당(시장)의 활성화이다. 현재 북한에는 400여개에 이르는 장마당이 형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을 선택한 결과이다.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북한의 시장화는 김정일 정권의 시장통제 정책에도 그 명을 이어와 현 김정은 체제에서 안착이 됐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생존의 터로 자리매김 했다. 김정은보다 시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외부정보의 유입과 정보유통이다.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히 통제해 왔지만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엄청난 정보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과 해외파견근로자, 중국 상인들이 외부정보 전달자 역

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드라마, 영화, 노래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북한 당국이 감추려고 했던 남한에 대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이 북한 내에서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고 있다. 남한 드라마와 영화가 사람들 속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 보니 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자도 생겨났다. 이로 인해 북한에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진실과 정보는 북한 당국에 의해 더 이상 왜곡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장마당 세대’ 등장이다.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시기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대내외적으로 내세웠던 무상배급, 무상교육, 무상치료라는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로 태어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복지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세대가 장마당 세대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당과 수령,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기성 세대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국가의 복지혜택이 아닌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키워낸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외부 세계의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 내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주도하는 선두그룹이라는 것이다. 한류문화를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장마당세대가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남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적대적인 교육 및 선전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세대에게는 남한은 더이상 적이 아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사회의 장마당 활성화, 외부정보 유입과 유통, 장마당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북한은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국정 과제 1순위이며 체제유지의 선전도구였던 ‘남한적화통일정책’추진에 있어서도 큰 걸

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환경 속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시각과 관점은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낮고 외부세계 정보를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장마당 세대들의 통일외식 변화는 북한의 기성세대보다 더욱 빠르고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아닌, 남한 주도의 통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잘 사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면 남한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그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통일정책의 변화 필요

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기대감은 당국의 선전·선동이 무색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은 북한 정권과는 정반대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정책에도 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통일정책,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통일정책이 시급한 때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필요

먼저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미지는 ‘하나 된 한반도 지도’이다. 남과 북의 땅덩어리가 하나가 되는 것 즉, ‘국토통일’이다. 하지만 ‘국토통일’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과제이지 시작은 아니다. 국토통일에 앞서 체제통일, 문화적 통일, 교육의 통일, 사람의 통일을 이룬 후 최종적으로 국토통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통일을 민족주의, 한국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통일이익’이다. 통일만 되면 제2의 경제부흥, 강소국 진입, 관광과 광물산업 활성화 등 그 이유는 수없이 많다. 당연히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의 정치구조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만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 후 우리의 이익만 주장을 한다면 과연 주변 강대국들은 통일을 환영할지 의문이 든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인간심리의 속성은 단지 우리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독일 통일 전 “나는 독일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두 개의 독일로 남아 있는 것이 좋다”라는 독설을 했다고 한다. 우리 주변국에서 이런 미테랑 대통령 같은 독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에 대한 민족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변 강대국들에게 통일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에게는 통일만 되면 북핵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이는 일본, 대만의 핵무장 주장을 잠재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 후 1,400km를 국경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동북3성의 경제발전, 탈북자, 국경범죄 해소 등을 한반도 통일의 이점으로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일본과 러시아에게도 통일이 가져다줄 자국의 이익을 어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다.

마치면서

현재 북한사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사고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통일 환경은 점점 우리에게 이로운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통일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통일정책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통일 정책이 시급한 때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가올 통일을 위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소”라고 물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말이다. 북한주민들의 향한 기독교인들의 노력들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기독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100년 전에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재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가올 통일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꿈과 도전에 힘을 실어줄 정책과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백을 교회에서 채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 비전을 품은 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통일 한국의 선교사, 통일리더로 만들어야 한다.

100년 전, 3.1 만세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미래 통일한국 건국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평가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강원철 형제 / 통일부 통일교육원

포마인터뷰 | 수요강좌 마친 김영한 목사

우리 삶에 숨어 있는 네 가지 배척에서 벗어나야

5월 22일 마친 수요강좌의 주제는 ‘배척’! 뭔가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쉽게 해설하느라 힘쓴 김영한 목사를 만나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강좌를 마친 소감이 어떠신지요?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나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이었습니다.

주제가 좀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수요예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오랜동안 섬겨서 기도 시리즈로 나눌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주제였고, 전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배척에 대해 전해야겠다고 부담이 왔습니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세요.

제가 나눈 배척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1) 관계의 배척—결별(막10:1-13)
- 2) 가족의 배척—탐욕(민11:26-35)
- 3) 영성의 배척—중독(유1:11-13)
- 4) 신앙의 배척—율로(마5:1-3)

첫 번째 시간에 관계의 배척은 사랑 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품지 않는 ‘결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브릿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단절되어 살아가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나눈 내용은 가족의 배척은 탐욕으로 성경에 우리의 ‘신은 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세상적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영성의 배척으로,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는 것에 빠져 살

아가는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910만 명 이상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간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5대 중독인 알코올, 마약, 도박, 음란, 성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5대 중독 이외에도 수많은 유혹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경건 훈련을 통해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세상적 흐름에 발맞추어 율로(Only You Live Once)시대에 편하고, 편리하게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명의 삶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율로 시대에 안주해서 살기 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삶, 헌신적 삶, 그리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으신지요?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싶습니



다. 지금 청년부에서 계시록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성도님들과도 같이 숙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조금 급하게 메시지를 나눈 주도 있었고, 메시지를 나누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청년부 설교 후에는 최소 10분 이상은 찬양과 기도를 같이 하는데, 예배 때 의지적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줄함울

사역소식 | 반가운학교

제2회 반가운학교 미술반 전시회를 마치고



반가운학교는 지혜의 근본 되시며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

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초.중.고)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논술, 수능국어 등 학교수업을 보충하는 교과학습 수업과 중국어, 미술(초등, 중등) 특기적성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발굴하고 재능을 키워 나가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년별 지도중심으로 1:1이나 소그룹별로 수업이 진행되며 자원봉사하시는 교사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학습, 미술전시회, 과학탐구, 관람 등 다양한 특별활동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대학진학 후 반가운학교 교사로 지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아름다운 전통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주말 하루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부르심 앞에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분들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

사함과 아름다운 동행임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2회 미술반전시회를 5월 19일(주일) 교회 로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본 전시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이용수장로님과 임경순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습시간, 5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못 견디는 아이가 미술시간에 두 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는 등, 겉모습만 보는 학생들의 특징과 달리 다양함의 재능을 발굴하고,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음 속에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순수하고 맑은 감성과 성품들이 표현되고 놀라울 만큼 재능도 실력도 보여준 아이들... (미

술 선생님의 말 “색깔이 각각 다른 아이들을 보며 미술시간에 뿔어내는 향기가 저를 감동시켜요”)

열심히 아이들 그림을 예쁘게 봐주신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 및 많은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 자녀들을 반가운학교에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태도를 지닌 학생들로 성장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생이 되길 바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학교,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학교,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학교가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뜻과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반가운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은영 교사 / 반가운학교

사역소식 | 사랑나무

사랑나무가 있어서 좋아요



6월 18일 주일 오후, 김화수 담임목사와 발달장애인(자폐, 지적장애) 공동체 사랑나무의 학부모님들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주님의교회 사랑나무에 자녀들을 보내게 된 애기와 자녀들이 사랑나무에 출석을 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도 들었다. 사랑나무 예배도 3부에 드리니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거나, 자녀들이 토요일 오후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잠시 육아의 짐을 덜고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애기들을 담임 목사님과 편하게 나누는 모습이 마치 사랑방 좌담회 같았다. 자녀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주일만 되면 어떻게 아는지 어서 교회에 가자고 해서 함께 오는 즐거움이 있고, 주님의교회에 사랑나무가 있어서 좋다

며 학부모들도 주일을 기다린다고 했다. 마음속 바람도 나누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뚜렷한 소속이 없어지는 발달장애인이기에, 교회가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길은 없을까? 머물 작은 장소, 아주 작은 일거리라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당장 뚜렷한 해결책에 이르지 못했지만, 사랑의 대화는 언제나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같았다. 한 어머니가 만남 후 남긴 말씀이다. “사랑나무반에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신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도 다녀봤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신 담임목사님은 처음입니다.”

함글함글

사역간증 | 피택자교육

축제처럼 즐거웠던 피택자 교육

안수집사로 피택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피택통보를 받고는 이왕 받는 6개월의 피택교육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재미나고 즐겁게 받을까를 곰곰 생각하다가 내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는 나부터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서 "궂은 일은 내가 먼저"라는 자세로 피택교육을 축제처럼 즐겁게 받기로 결심하고 교육에 임했습니다. 다행히도 가나다순으로 6개 조로 편성을 했었는데 4조의 김덕임, 유정아, 정재영 3명 권사님과 신호철, 이승훈, 저 3명의 집사가 한조를 이루었는데 정말 환상의 4조였습니다. 가나다순에 의해 제가 조장을 맡았고 총무는 권사 피택자 중에서 연장자인 정재영 권사께서 맡아주셨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답

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변함없이 4조의 6명 중 저를 제외한 5명은 꼭 장로 장립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을 정도로 믿음도, 기도도, 봉사도, 영성도 특출한 최고의 피택자들만 4조에 다 모였으니 조장인 제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다행히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담임목사님께서 오셔서 피택된 저희들은 김화수 제2기임을 명심하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로 다짐을 단단히 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동 안수집사

알립니다

창립 30주년 특집을 마감합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창립 30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24일 창립기념호인 396호에서 예고했던 함글함글 지상토론 “한국 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을 399호부터 410호까지 7회에 걸쳐 수록했습니다. 이에 앞서 함글함글에서는 지난 2015년, 주님의교회 27주년기념 특집기획으로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제하의 지상토론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초심을 되살려,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날로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주님이 주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했던 기획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소명>을 쓴 오스 기니스의 고백과 같은 슬픈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이탈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선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악한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여 온 이야기가 바로 교회사”임을 고백했었습니다. 창립 당시 교회의 본질을 잃고 외형과 규모의 성장에만 몰두하던 한국 교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주님의교회였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제도는 남아 있되 주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가졌던 깊은 성찰과, 교회 안팎의 일상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실천하려던 올곧음은 빛이 바랜 듯하여, 초심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상토론은 351호(2015. 7. 5)에서 시작하여 358호(2015. 12. 20)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에 걸쳐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교회 내부 기고 외에도 <주님의교회 25년사> 필자인 최영재 목사,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실천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 송실대 김희권 교수, 박춘희 송파구청장, 장신대 장신근 교수, 지동소전 정신여고 교장 같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날카로운 지적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이어 30주년을 맞은 2018년 “한국 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을 주제로 지상토론을 기획했습니다. 그해 교단과 교회의 표어가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였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는가를 가리켰습니다. 또한 교단 신학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깊이 있게 모색해온 공적신학의 여러 영역들 역시 교회가 몸 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인 사회는 그동안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개방되면서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경계가 휘발되었고,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상상력과 소통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낳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환경 문제, 실업과 빈부의 격차, 가족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재구성 등의 현상은 전통과 관습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님의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참 많은 생각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당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을 소통, 정치, 경제, 교육, 가치, 환경 등 여섯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399호(2018. 9. 9)에서 그 취지와 논의할 세부 내용들을 밝혔고, 이후 410호(2019. 5. 19)에 이르기까지 양희송 청어람 대표, 권연경 송실대학교 기독교학 대학원장, 박득훈 목사, 왕진무 안수집사, 정은진 진로와소명연구소 소장,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이창호 장신대 교수, 그리고 익명의 교인 등의 육고와 인터뷰 기사를 수록했습니다. 모든 기사들은 지상토론의 방식에 따른 개인의 의견이었으므로, 관점이나 견해가 다른 의견도 수록하여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기를 기대하고, 매호 세부 주제를 말씀드리고 공동체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0호로 이연간기획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수록했던 내용에 대해 다른 관점과 깊이가 있는 더 좋은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기회를 놓치셨을 수도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감 전에 공동체에 도움이 될 좋은 글들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려 합니다. 어떤 소주제에 대한 어떤 의견도 환영합니다. 다만, 이 기획의 취지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축적된 신학 연구에 기반을 두고, 어느 정도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글이기를 기대합니다. ‘지상토론’이라고 제목에 쓰셔서 7월 20일까지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함줄함줄 캠페인 | 본질을 생각하는 교회②

교회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맙시다

자동차가 현대문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동차가 가져다주는 편리함 때문에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자동차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부의 상징성 때문에 크고 비싼 차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자동차 때문에 현대인은 매일 교통의 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원료로 삼아 동력을 얻는 자동차는 사람에게 해로운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최근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며,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망은 땅을 조각조각으로 나누어 자연을 훼손하고 심지어 사람들도 걸어 다니기 힘들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교통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지닌 많은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대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자동차는 필수적입니다. 현대 도시에는 살아가는데 필요

한 시설이 널리 흩어져 있어서 다 걸어 다니며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본래 큰 부피를 지니고 있어서 늘어나는 차의 수에 비례하여 필요한 도로와 주차장 때문에 생태적, 사회적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자동차를 대신하여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이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정적 효과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는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을 편리하게 만드는 교통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큼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정책과 함께 자동차 운행을 비싸고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의 차선 수를 줄이고 차선의 폭을 좁히는 도로다이아트 정책, 도심에 주차장의 공급을 막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게 비싼 혼잡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현대 도시의 자동차 문제를 우리 교회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정신학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님의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기 편리합니다. 동시에 주님의교회는 잠실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위치하여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편리한 많은 버스노선의 정류장이 가까이 있습니다. 작년 창립30주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교회와 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교회를 다니는 데는 자동차와 대중교통 모두 편리합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님의교회를 오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까닭은 “본질을 생각하는 교회”의 정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편리한 차를 타고 교회에 옴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주차정리를 하느라 고생해야 하고, 운동장을 훼손시키고, 유소년 축구를 하기 힘들게 만들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주민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편리한 자동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는데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도 대중교

통의 이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한 달에 절반만 교회에 차를 가져오기”** 또는 **“격주에 한 번은 차를 안 가져오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반도 내가 건강하다면 그리고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어린아이가 있거나 대중교통 편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수는 지금의 절반이 되어 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더 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정신으로 50대 50의 재정 운영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절반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정신이기 때문에 “한 달에 절반만 교회에 차를 가져오기”와 뿌리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창립정신에 들어 있는 50대 50 원칙의 실천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함줄함줄

지역소식 | 안수집사회

안수집사회, 한국기독교 역사 발자취 탐방

5월 18일 토요일 아침에 교인 73명이 버스 2대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인천 개항지를 당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교회를 출발한 버스는 한 시간 뒤에 인천 제물포항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6년 3월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탑에 도착하여 기념탑 교회 박준호 담임목사님의 안내로 아펜젤러 부부,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 배경, 입국 지점, 기념탑 및 기념교회 설립배경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한국 기독교가 시작된 발자취, 기념탑과 새겨진 역사적인 사연,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시어”라는 기도문

을 보면서 그날 선교사님들의 간절함을 회상해 보았다.

이어서 인천 중구청 해설사 4분의 안내로 선교사님들이 도착하여 묵었던 대불호텔에서 한국에 기독교 복음 전파를 위해 고민했던 현장을 둘러보고 또한 1882.5 한미 통상조약 체결과 더불어 제물포항을 통하여 다양한 외국 문물이 함께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였다.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한국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내리교회를 찾아 전문 해설사 김정숙권사님의 안내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일어났던 일들, 초대 아펜젤러 담임목사부터 지금까지 130여 년간의 역사 흐름, 아름답게 꾸며진 본당과 파이프오르간 연주, 교회 역사관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뿌린 희생의 씨앗 결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독교임을 다시 한번 회



상하였다.

또한 외국과 왕래가 빈번하였던 곳이라 외국 문물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공회 소속 내동교회, 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제일교회, 담동성당 등을 비롯하여 긴 역사를 지닌 많은 교회와 성당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었다.

지면 관계로 자세한 소개는 못하지만

인천 개항지는 625 동란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장군 동상, 우리나라 유일의 차이나타운, 일본은행 및 일본식 건물이 즐비한 일본풍 거리 등 작은 도시의 공간이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품고 있는 뜻깊은 곳들이 많아 하루 일정으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역사의 순간들을 회상해 볼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여행이었다.

이명기 안수집사 / 안수집사회 회장

목회칼럼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계획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때로는 인생을 조금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쉼을 누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후회할 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맵은 목적지까지의 길을 다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확성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많은 것들에 보함을 들면서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이유는 미래가 두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에는 보함과 같은 것이 필요 없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똑똑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시한 채 자기의 계획만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1년간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을 계획하며 돈을 벌겠다고 한다. 야고보 4장 14절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확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많은 계획들과 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존재들이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계획은 엉뚱한 계획만을 창조해낼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욕심에서 계획할 뿐이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이다. 노아의 시대

에 모든 사람이 악했지만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한다(창 6:9).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친히 알려주신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준비와 계획은 무엇일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머리의 구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꿈과 계획은 결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 공상적인 생각이다. 단계마다 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고 맡겨 드린다면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기보다 일단 걷게 하시는 것 같다.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신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것이다.

“이 광야를 가로질러 나는 방랑한다. 돌이킬 수 없는 여정. 나는 길을 뿐이다. 그러나 무엇을 대면하게 될지 몰라도 두렵지 않다.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에” (I wander through this desert, a journey I cannot avert, I walk, I'm not afraid of what I will have to face, with Him I walk) 이한영, 「명자누나」, 133p

무엇을 대면해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에... 이종성 목사

새해 특집 | 담임목사 추천 도서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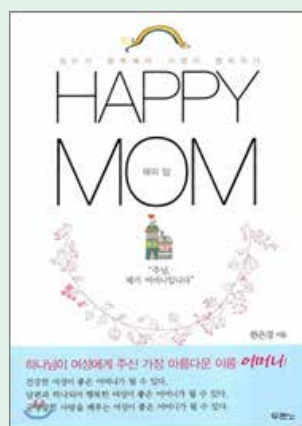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를 깊게 이해하는 좋은 책들

지난 410호에 이어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고 바른 부모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들은 교회 1층 설만한물가에 비치, 쉽게 구입하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유기성 지음, 넥서스크로스, 2017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은 우리 모두의 가정에 행복을 더하기 위한 훈련 교재다. 저자의 제자훈련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 속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단원을 독립해 한 권으로 엮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천국 같은 가정이 현실 가능한 것일까? 저자는 그렇다고 단언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개인적인 삶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경 지음, 두란노, 2013

《해피맘》은 어머니가 짊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안내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보여준 책이다. 가정에서 성경적인 어머니 상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여성상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마련하려는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들을 위한 소그룹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수료를 통해 ‘회복’ 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그 어머니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 다른 어머니들을 도와 건강한 가정, 교회,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건강한 여성, 남편과 하나가 되어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 허용과 통제의 균형 지키기, 하나님과 소통하는 등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을 보여준다.



송길원 지음, 두란노, 2004

가정 사역 전문가로서 한국교회에 행복한 가정문화를 보급하는 일에 헌신해 온 송길원 목사의 가정 사역 실용서.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목회 현장에서 보다 보편적인 코드로 접근하여 각 교회별로 주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현장에서 고민하며 길을 찾는 이들에게 풍부한 실질적 사례와 정보를 제공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교회 소식

새로 안수받은 항존직을 소개합니다

2018년에 피택되었던 항존직 피택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19년 6월 23일, 창립 31주년 기념일에 안수를 받았다. 이날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게 된 이들은 이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섬기고, 어린아이보다 더 겸손하며,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손에 물을 문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감당해야 할 터이다. 그 쉽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함줄함줄

■ 장로



김은성 장로

세우신 이가 주님이시니, 능력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쓰시는 이도 주님이 실 테니, 나는 오로지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며, 그대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는 장로 되겠습니다.



김낙균 장로

한 없이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직분을 주시니 어찌 감당해야 할지 중압감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낮은 자세로 교회와 교인을 섬기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에 더 많이 기대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소통하며, 협력함으로 건강하고 좋은교회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식 장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 왔던 장로님들의 모습은 선하시고 늘 모범을 보이셨던 교회의 어른들이셨는데 이제는 제가 그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신앙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기 위해 주님의 옷자락을 꼭 잡고 힘과 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수집사



김길동 안수집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권사로 안수집사로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시기를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창수 안수집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을 하게 되니 내가 교회 일꾼이며 주인이고, 은유와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 아끼며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멀리하게 되어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이사야 43장) 부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정 호 안수집사

믿음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저를 많은 공동체 성도님의 투표를 통해 안수집사로 선출해 주신 격려와 기대에 힘 입어 부족하지만 좀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피택자 교육을 통해 느끼고 깨달았던 믿음의 본연을 잃지 않는 성도로서 평화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교우들 사이에 신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는 작은 자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홍기호 안수집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고 오리를 건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는 등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십계명 지키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여덟 가지 삶의 자세의 천국의 평강에 대한 체험"(마 5:1-12)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과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건 안수집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임기 동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말은바 소임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신호철 안수집사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10:14).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목사님의 새로운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영적 파워와 말씀의 순발력은 대단하셨고, 자상하고 섬세하며 잔정도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번 과정은 나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일깨워 준 행운과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피택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



엄인호 안수집사

임직식 전날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르고 집에 와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구두를 보며 새롭게 각오를 다져봅니다. 1. 말씀과 기도가 들숨과 날숨이 되어 호흡이 있는 동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2. 이전에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겸손이 내 앞을 지키게 하소서. 3. 교회 부서에서 일꾼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며 손들고 나가게 하소서.



김성철 안수집사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살려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저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피택교육을 마쳤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섬김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르다를 닮아 겸손히 섬기고, 마리아를 닮아 주님 말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만희 안수집사

부족함으로 시험이 될까 두렵고 강박함으로 상처가 될까 두렵고 연약함으로 걱정이 될까 두렵고 교만함으로 복음과 사랑이 멀어질까 두렵지만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이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치민 안수집사

주님의교회에 첫발을 내딛은 지가 어언 20년... 처음엔 주말에 운동하는 재미가 내 삶에 유일한 활력소였기에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영 못 마땅해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의 몸 된 종으로 쓰임 받도록 안수집사 피택이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부족하기만한 신앙의 깊이를 채워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승훈 안수집사

안수를 받는 순간 눈물이 고였고, 안수기도가 끝나도 흐느낌은 쉽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원천히 지워지고 씻겨지는 듯한 깨끗한 기분과 마음의 맑은 느낌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분과 다짐은 내가 원하는 원치 않던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지금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음을, 벗어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박준명 안수집사

10여 년 이상 교회 응급실에서 그리고 광장동과 하남에서 묵묵히 외국인 노동자를 진료하시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기도가 낯설고 말씀이 생경한 믿음의 막내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겸손하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박동구 안수집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교회 안수집사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생각과 행동을 살가며 성실히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오재경 안수집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5-6)하신 주님 말씀 부여받고 임직에 대한 다짐을 주님께 의지함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꿈을 꾸는 주님의교회 공동체로 나날이 풍성해지는 데 작은 노력을 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기대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박진현 안수집사

이제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 것도 없음을 제자신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자신감이 없고 늘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균 안수집사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피택자 교육 8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직을 통해 영원히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나의 부족하고 쓸모없음에도 주님의 쓰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돕는 가족과 말씀과 능력으로 든든히 본을 보여 주시는 목사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하시니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송성열 권사

■ 권사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님 앞에 바른 임직자로 세워지기 위해 목사님의 지도하에 큐티 나눔과 성경 일독, 새벽기도 참여, 필독서 3권 독후감 쓰기, 리더십 특강 등으로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마치 영적 아버지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1:7) 말씀 붙들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춘실 권사

누림이 아닌 섬김의 자리에 한 걸음 나아감이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고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고백의 만분의 일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기를 간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이어질지라도, 주님이 하심을 굳게 믿으며, 거룩한 부담이 늘 내 삶의 선두주자이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조심조심 발 내딛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정태란 권사

임직자로서의 직책이나 직분이 결코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훈련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온유하면서도 강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용기 있게 한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유현자 권사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겸손한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이미화 권사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도우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내게만 머물렀던 맘과 눈으로 사방주위를 돌아보겠습니다. 닫혔던 입술 열어 예수님을 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나의 모자라고 약하고 약한 부족한 모습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끄시고 지원해 주신 목사님과 교우들 가족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립니다.



김광희 권사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매시간 눈물이 자꾸 나서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이 자리 품어주며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배애리 권사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새 각오를 다지는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신 모든 일에 더욱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늘 기도로써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영 권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내가 권사이긴 집사이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내가 2부 임직 인사 때 저를 보고 따뜻하게 웃으며 손 벌려 축복해 주는, 오래되어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학부모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감격함과 감사와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나를 권사라고들 부를 텐데 나로 인해 시험에 드는 지체들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유정아 권사

어제 임직식을 마쳤다. 평생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인이었으면서도 평생 자식들 위해 바쁜 탓에 직분을 받지 못하셨기에 큰딸 직분 받기를 기다리다가 3년 전 하늘나라 가신 내 어머니께서 보셨으리라. 내 임직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갖 병마와 힘들게 사투를 벌이면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내가 선교 마치고 공향에도착하자마자 하늘나라에 승차한 내 친구도 보았으리라. 그분들의 뒤편까지 충성된 직분자가 되기를 다짐한다.



이영수 권사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기도하고 삶으로 더 거룩하게 살라고 훈련시켜 주시고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책임이 더 느껴져서 무겁기도 하지만 이제껏 이끄시고 함께 하였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함께 훈련받게 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겠습니다.



김덕임 권사

처음 피택교육 때엔 서먹하고 낯설고 그런데 6개월 교육기간 동안 너무 정들어서 교회에서 만나면 가장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매주 만나 말씀 듣고 티타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훈련 기간이 넘 소중하고 귀하게 느낀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택자들의 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컸습니다! 새힘 주시는 대로 섬기겠습니다!



박선주 권사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피택교육은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를 주님의교회 임직자로 세워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과 기도로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일과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숙 권사

임직식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안수하실 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결혼하기 전날 신부의 마음인 듯,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너무 좋은 한테 이제와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한 사람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맘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주님이신데 더 좋지만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경란 권사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주님교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낳은 자세로 잘 섬기고 협력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김유경 권사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직분자의 섬김은 결과가 좋은 나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과 결과는 모두 섬기는 자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두 분이 임직 전 제게 보내주신 메세지인데 이제 권사로, 아니 크리스천으로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 매고 그리 살고자 합니다.



함혜련 권사

주님의교회 출석 20년, 그동안 겪은 권사님들은 제가 신발끈도 못 묶어드릴 만큼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몸살을 앓으며, 침 맞으며 봉사하셨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갖은 투정을 받아 주던 엄마였습니다. 저는 결코 저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늘 절망하였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신데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정신학원 소식

제1회 정신포럼 특강 개최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2019년 7월 15일, 김마리아회관 대예배실에서 정신여자중고등학교와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이 주최하는 “2019년 제1회 정신포럼특강-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주제는 “달란트”이며 정신여중 출신인 탤런트 신애라가 강사로 초빙되었다. 정신여중고 학생, 교사와 학부모, 주님의교회 성도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45분 강의, 45분 토크콘서트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신포럼”을 기획한 임경순 목사에 의하면, 정신포럼은 “첫째,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타인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신학원 출신의 리더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크리스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 둘째, 앞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힘으로써 오늘의 불안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생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 셋째, 교회와 학교와 가정(부모와 지역사회)이 한 자리에 모여 청소년을 사랑하고 살리며,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울타리,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2019 주님의교회 전교인 사경회



강사_이재철 목사

7.2 (화) '인생에 대해' 일후4:6-8

7.3 (수) '사랑에 대해' 요13:34-35

7.4 (목) '설겅에 대해' 시94:8-9



알립니다

1. 2019 전교인 사경회

일시 : 7/2(화)~4(목) 오후 7:20 대예배실

강사 : 이재철 목사

주제 :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

2. 주님의교회 자체 월간 큐티책 이름 공모(9월 창간호)

신 청 : 한시영 목사(010.8935.5048)에게 본인 이름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전송

참가상 : 참여자 전원에게 월간 큐티 창간호 증정

선정자 : 월간 큐티책 3년 정기구독권 증정

차점자 : 월간 큐티책 1년 정기구독권 증정

알립니다

함즐함울,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 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즐함울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2019년 제1회 | 정신청소년포럼 특강

신애라 동문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강 연 자 배우 신애라 (정신여중 71회 졸업)

강의 주제 달란트

일 시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시 간 18:00-19:30 (90분 내외 진행)

장 소 김마리아회관

대 상 정신여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주님의교회, 지역사회 주민

정신여자중고등학교 /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